

# Greeting

We are very pleased to present *Potter Kawai Kanjiro: Works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jointly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and the Kyoto Shimbun.

Kawai Kanjiro was born in 1890 in what is today Yasugi City, Shimane Prefecture.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he worked at the Kyoto Research Institute for Ceramics as a technician and devoted himself to research on tens of thousands of glaze types. After resigning from the institute, in 1921 he had a spectacular debut with a solo exhibition of works inspired by Chinese and Korean ceramics. Afterwards, however, Kawai significantly shifted his creative course and participated in the Mingei (Folk Art) movement, pursuing ceramics in a manner that emphasize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life and ar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owns many works by Kawai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unparalleled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otalling some 425 items, the Kawakatsu Collection covers Kawai's entire career from beginning to end and functions like a chronological encyclopedia of its various periods, conveying the entire scope of his oeuvre. The late Kawakatsu Kenichi, who served as head of advertising at Takashimaya's Tokyo branch and general manager of Takashimaya, was a friend of Kawai's from the latter's first solo show until the end of his life, and Kawakatsu called the collection "an embodiment of [the two men's] friendship."

Thus fa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has presented works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in three exhibitions, *Kawai Kanjiro: The Kawakatsu Collection* (1968), *Kawai Kanjiro* (1983), and *Masterpieces by Kawai Kanjiro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Collection* (2005). Now, in the first such exhibition in 14 years, we present an extensive selection of Kawai's most important works from throughout his career from the Kawakatsu Collection, alongside works by some of Kawai's Mingei movement associates, such as Hamada Shoji, Bernard Leach, and Tomimoto Kenkichi, highlighting the ways his style evolved in the context of Mingei.

In closing, we would like to thank the late Kawakatsu Kenichi for his generous gift of these precious works, as well as Kawai Kanjiro's House and everyone else whose kind cooperation made this exhibition possible.

April 2019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The Kyoto Shimbun

## 致辞

此次,京都国立近代美术馆与京都新闻联手举办“《京都新闻》创刊140周年纪念 川胜收藏 钟溪窑 陶匠·河井宽次郎”。

河井宽次郎在明治23年(1890年)出生于现在的岛根县来安市,大学毕业后在京都市陶瓷器试验场担任技术员,并投身于数量庞大的釉药研究。河井从试验场辞职后,于大正10年(1921年)举办了首次个展,他以中国、朝鲜陶瓷为范本的作品风格在陶艺界华丽登场。之后他参与民艺运动,这极大地改变了他的创作方向,他将生活和创作紧密结合展开制陶活动。

京都国立近代美术馆收藏的河井作品(川胜收藏)无论质还是量都最为充实,总计多达425件的川胜收藏包罗了河井从早期到晚年的代表性作品,是一本讲述河井创作全貌的“年代作品词典”。完成这一收藏的已故川胜坚一先生曾任高岛屋东京分店宣传部部长和高岛屋总经理等要职,他与河井长年的友情可以追溯到河井最初的个展,而对于自身的收藏,川胜称之为“河井与我两人友情的结晶”。

之前,京都国立近代美术馆已经举办过《陶匠 河井宽次郎——川胜收藏》(1968)、《河井宽次郎展》(1983)、《京都国立近代美术馆收藏——川胜收藏名品 河井宽次郎展》(2005),三次对川胜收藏进行了介绍,此次则是时隔15年再次将川胜收藏汇聚一堂进行介绍。这次,除了展出从早期到晚年的河井名作之外,还同时介绍通过民艺运动与河井相知相识的富本宪吉、伯纳德·利奇、滨田庄司等人的作品,由此追溯河井在民艺运动中是如何改变自身的创作风格的。

最后,谨向为举办本次展会捐赠了珍贵作品的已故川胜坚一先生,以及为本次展会提供鼎力协助的河井宽次郎纪念馆及广大相关人士致以由衷的谢意。

2019年4月

京都国立近代美术馆  
京都新闻

## 인사말씀

이번에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과 교토신문은 “교토신문 창간 140주년 기념, 가와카쓰 컬렉션 쇼케이가마 도공 가와이 간지로”를 개최합니다.

가와이 간지로는 1890년에 현재의 시마네현 야스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교토시 도자기시험장에서 기수로 근무하면서 방대한 양의 유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시험장을 사임한 후 1921년에 첫 개인전을 개최해 중국과 조선 도자기를 본뜬 작품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민예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고, 생활과 창작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도예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가장 충실한 가와이 작품(가와카쓰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총 425점에 이르는 가와카쓰 컬렉션은 초기부터 가장 만년에 이르는 가와이의 대표작을 망라하고 있어, 그의 작품세계 전모를 보여 주는 “연대기적 작품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만든 고 가와카쓰 겐이치 씨는 다카시마야 도교지점의 선전부장과 다카시마야 총지배인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가와이와 가와카쓰의 오랜 교우는 가와이의 첫 개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인의 컬렉션에 대해 가와카쓰는 “가와이와 가와카쓰, 두 사람의 우정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에서는 “도공 가와이 간지로-가와카쓰 컬렉션”(1968), “가와이 간지로전”(1983),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소장-가와카쓰 컬렉션의 명품 가와이 간지로전”(2005) 등 세 차례에 걸쳐 가와카쓰 컬렉션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15년 만에 가와카쓰 컬렉션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해 드리지만, 본 전람회에서는 초기부터 만년에 이르는 가와이의 명품과 함께 민예운동을 통해 가와이와 교류했던 도미모토 겐키치, 버나드 리치, 하마다 쇼지 등의 작품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가와이가 민예운동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작품을 변화시켜 갔는지 따라가 볼니다.

마지막으로 본 전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중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고 가와카쓰 겐이치 님을 비롯해, 협력해 주신 가와이 간지로 기념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4월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교토신문